
조선어학회 수난과 민족어 수호 운동

—일제 강점기의 한글 운동은 국권 회복 운동이었다—

고영근 ·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1. 들어가기

올해는 ‘조선어학회 사건’, 우리 측의 관점에 서면 ‘조선어학회 수난’¹⁾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어문 운동을 독립 운동으로 규정하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 33명을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가하고 옥고를 치르게 하였다. 사실 일제가 어문 운동을 독립 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한 제국 시대에는 어문 민족주의와 역사 민족주의의 두 사상적 지주가 우리의 국체(國體)를 떠받치고 있었다. 주시경은 국가 형성의 세 요소로 ‘구역, 인종, 언어’의 셋을 들고 그중 언어, 곧 말과 글이 가장 으뜸되는 속성임을 주장하면서 우리말과 우리글의 연구와 보급에 심혈

1) 한글학회는 오랫동안 불러 오던 ‘조선어학회 사건’을 그 50주년을 맞아 ‘조선어학회 수난’이라고 고쳐 불렀다(한글학회 1993:머리말). 그 사이 ‘조선어학회’도 ‘조선 어학회’(‘조선의 어학 연구 모임’의 뜻)로 불러 왔으나 역시 한글학회의 띄어쓰기와 같이 ‘조선어 학회’로 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조선어’의 자리에 ‘국어’를 대치하면 ‘국어 학회’가 되는 것을 보면 한글학회의 처사가 옳다고 생각한다.

을 기울였다. 개화기에 주시경과 취향(趣向)을 같이하는 인사로는 이상재(李商在), 지식영(池錫永), 박태서(朴太緒)(출생순) 등을 꼽을 수 있다.²⁾ 한편 신채호(申采浩)는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심 원천의 가장 좋은 요소는 ‘역사’라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워 이를 보급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신용하 1984가:96~109, 1984나:151~154). 박은식(朴殷植)도 같은 계열에 속한다(신용하 1984나:11~38). 이들은 모두 애국 계몽 사상가로서 크게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들이다.

우리의 민족어를 발견하여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멀리는 5세기 초의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우리 선인들은 비문을 통하여 우리의 고유 지명을 한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시험하여 보았으며 8세기 초의 신라의 유학자 설총(薛聰)은 이두(정확히는 ‘석독 구결’)를 창안하여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신라 공통어의 보급에 기여하였고(안병희 2001), 대각국사의 의천(義天)은 화엄경 등을 우리말(석독 구결)로 번역하여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고려 공통어의 보급에 기여하였다(박종홍 1972:154, 158). 우리 선인들이 한문 경전과 불경을 민족어로 번역한 것은 자주 독립 국가의 보람[徵表]이 민족 어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5세기 중엽의 훈민정음은 풍토가 다르면 언어·문자가 다르게 마련이라는 ‘언어 풍토설’에 영향을 받아 창제되었다(고영근 1999/2001:17~30). 한글의 창제가 계기가 되어 서울 중심의 공통어의 보급이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 밖에도 민족어를 중시하는 흐름은 향가를 한문으로 번역한 고려 시대의 최행귀(崔行歸)와 조선 시대 구운몽의 작자인 김만중(金萬重)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김만중은 한문 문학은 허위이고 국문 문학만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하였다.

2) 개화기의 인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언어관, 정확히는 해석학적 언어 철학은 고영근(1995/2008:4~17)을 보라.

근대에 와서 국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보급에 앞장선 사람은 19세기 말의 서재필(徐載弼)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얼마 전 미국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서재필보다 6년 먼저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士民必知)를 통하여 한글 경시의 태도를 비판하고 한글 전용의 시범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³⁾ 민족 어문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한글만 쓰는 방향의 어문 정책은 그 뒤의 서재필, 주시경을 거쳐 일제 강점기의 민족 어문 학자에게 계승되어 마침내 민족어 규범이 완성되고 사전 편찬이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족 어문이 국가·사회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⁴⁾라는 사실은 바로 국권 회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립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뒤에 나옴).

개화기에 정립된 두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문화 민족주의’라는 차원 높은 사상 체계로 발전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환산 이윤재(李允宰)(1888~1943)와 고루 이극로(李克魯)(1893~1978)였다. 먼저 위의 두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문화 민족주의의 반열(班列)에 들어서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한다.

2. 환산과 고루, 그리고 문화 민족주의

환산은 서당 시절에 역사 공부에 흥미를 느꼈고 8세 때에는 서당 훈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중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3) 이는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동진 님이 한글학회 창립 104돌 기념 특강에서 〈한국인보다 한글과 한국을 더 사랑한 ‘헐버트’〉를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 발표 내용은 《한글 새소식》 481호(2012. 9.)에 실려 있다. 이곳에는 헐버트가 배재 학당의 출판 기관인 삼문출판사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주시경을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4)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 발문(跋文)(1906)에서는 말과 글을 사회 형성의 ‘기관’이라고 하였고 《國語文法》(1910)에서는 ‘性’으로 바꾸었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1995/2008:9)을 보라.

알고 통쾌감을 느꼈다고 술회한 바 있다(고영근 1998:162, 2008:183). 또 환산은 김해보통학교에 재학하던 20세 때 농무회를 조직하여 4개월 동안 명예 교사로서 국문과 역사를 가르친 바 있다. 환산의 야학은 황성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 뒤 환산은 마산 창신 학교에서 김윤경을 통하여 주시경을 알게 되었으며 조선어학회의 기관지 《한글》을 창간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공포되었을 때에는 주시경을 다시 찾아 학문과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경 유학 시에는 단재 신채호와 교우하여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고 《聖雄 李舜臣》 등 역사 관계의 저술을 많이 남겼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환산의 사상은 어문 민족주의와 역사 민족주의에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산의 사상은 김윤경이 쓴 환산 무덤의 비문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격 혁신과 정치 혁명을 위하여는 해외에서 흥사단에, 국내에 와서는 수양동우회에 관계하여 실력을 다하였고 국사를 통하여 조선의 역사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진단학회를 일으키었고 우리말과 글을 바로 잡기 위하여는 조선어학회의 중진이 되었던 것이다.

곧 환산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어문과 역사를 통합한 '문화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던 것이다.⁵⁾

환산의 사상이 문화 민족주의로 무장되는 과정은 중국 유학 시에 국내에 보낸 몇 편의 논설을 통하여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다. 환산은 1922년부터 24년 사이에 북경대학에 머물면서 시사 주간지 《東明》과 《시대일보》에 중국의 문자 개혁 운동, 문학 운동, 연극사, 학계와 정계의 충돌

5) 환산의 사상 형성에 대하여는 고영근(1992/1998:161~207, 2008:181~201)을 보라.

문제, 학생 운동, 여권 신장 운동,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 중국 의회의 역사, 몽골의 독립 운동, 중국의 민의(民意) 조사 등을 기고하여 왔다. 제목만 보아도 환산의 관심이 어문학과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에게까지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영근 1992/1998:180, 2008:203). 환산의 논설은 동양 사학자들에게 주목되어 그 내용의 정확성과 수준이 평가되기도 하였다.⁶⁾ 환산은 중국 유학을 통하여 어문과 역사를 통합한 문화 민족주의를 세웠으며 귀국하여서는 조선어학회에서 민족어 규범 제정에 헌신하였고 진단학회를 창립하여 민족의 혼을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의 김윤경의 비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산이 안창호의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에 관여한 것은 환산을 개화기 이후 줄기찬 흐름을 형성하여 오던 '애국 계몽 사상가'의 반열(班列)에 넣을 수 있음을 웅변한다고 하겠다. 환산과 같이 조선어학회 수난을 겪은 일석 이희승(李熙昇)(1957/일석 전집 6)에서는 환산이 의리(義理)를 잘 알았다고 평가한 일이 있는데 이는 도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환산의 인격의 일면을 대변한 것이라 믿는다(고영근 1993/1998:173, 2008:196). 환산은 대종교 신자로서 단군을 경모하였으며 자신의 호인 '환산'의 '환'을 '환인, 환웅'에서 따 올 정도로 자아에 대한 역사 인식이 투철하였다(이희승 1957, 고영근 1998:176, 2008:199). 개화기의 주시경, 박은식, 신채호가 모두 민족 종교인 대종교 신자였다.

고루 이극로 역시 환산과 같이 문화 민족주의를 지향하였다. 고루는 마산 창신학교를 마치고 서간도로 가는 길에 평안북도 어느 고을에서 고추장이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알아듣지 못하여 심한 방언 분화에 회의감을 느꼈으며 이때부터 주시경의 제자인 김진, 박건병, 김백주, 김두봉과 교우하면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고루는 환인현에 있는 동창학교에서 역사학자 박은식과 대종교 시교사(施

6) 민두기(1987)에 환산의 보고에 대한 평가를 접할 수 있다.

教師)이며 동창학교 교주인 윤세복(尹世復)을 만났으며 광개토대왕 능을 참배하고 비문을 읽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주시경 등을 따라 대종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이극로와 김두봉, 최현배, 이희승 같은 분들이다(고영근 2010:255). 군사학을 배우러 러시아로 유학을 가던 고루는 제1 차 세계 대전의 발발(勃發)로 다시 환인현으로 돌아왔다. 고루는 윤세복을 다시 만나고 역사학자 신채호를 만났으며 그 뒤 상해와 북경에서 역사학자 신채호와 교우하기도 하였다. 고루는 8세 때부터 10여 세에 이르기까지 동네 서당에서 개최한 백일장에서 3년 연속으로 장원을 하여 그 시재(詩才)를 일찍부터 발휘한 바 있으며 백두산에 올라 가서는 한시를 읊는가 하면 〈白頭山〉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남기기도 하였다(고영근 2006/2008:242~245,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204~206). 이러한 행적은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감옥 생활을 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런 경력들이 모두 고루의 문화 민족주의 형성에 자양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시절에 싹이 튼 고루의 문화 민족주의는 독일 유학을 통하여 열매를 맺었다. 고루는 상해 동제대학 예과(Gymnasium)를 마치고 1922년에 베를린대학(Friedrich-Wilhelm Universität) 철학부⁷⁾에서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언어학을 전공하였다. 학위 논문은 《중국의 생사공업》이었다. 베를린대학 재학 시절에 고루는 조선어 강좌를 설치하여 강사를 겸하기도 하였는데 학생들로부터 “당신네 말은 어째서 철자법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사전 한 권도 없느냐”라는 핀잔을 받기도 하였다.⁸⁾ 고루는 상해의 김두봉으로부터 분할제 활자를 얻어 이광수의 〈허생전〉을 몇 장 인쇄하여 베를린대학 《동방어학부 연감》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고루는 파리와 베를린에서 우리말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최근에 그 실험 사진이 발견

7) 독일의 철학부란 우리의 ‘문학부’에 해당한다.

8) 이극로의 베를린대학에서의 조선어 강좌 설치에 자세한 내용은 조준희(2008/2010:321~355)를 보라.

되어 고루를 한국 최초의 실험음성학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였다.⁹⁾

다음으로 고루의 역사 민족주의의 면면을 보기로 한다. 고루는 베를린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인 1924년에 《조선의 독립 운동과 일본의 침략 정책》을 독일어로 써서 전 유럽에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고루의 이력서나 고루의 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단, 《朝鮮近世史》란 한권의 책이 있다고 그의 이력서에 적은 것밖에는 달리 기록된 것이 없다(고영근 2006/2008:252,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213). 이 책의 저자는 'Kolu Li'로 되어 있어 그것이 '이극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으며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 종결서〉¹⁰⁾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제는 고루가 'Kolu Li'란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한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¹¹⁾ 이는 일제를 속이기 위한 고루의 의도적인 연막전술로 보인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 개관을 비롯하여 '조선의 개화와 외세의 제도/1910년의 강점과 그 이후/1919년 3월의 독립 선언과 그 이후'로 편성되어 있다. 고루는 이 책자를 통하여 높은 문화를 누려 온 한 민족이 어떻게 처음으로 외세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으며 다시 독립을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 책자의 내용은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용규 2008/2010:368~372).

독일 유학 시의 고루 이극로의 독립 운동은 1927년 2월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약소 민족 대회에 참석하여 조선의 독립을

9) 인터넷 창에서 '이극로'를 치면 바로 볼 수 있다.

10)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 종결서〉(1944)는 일찍이 이극로(1947)에서 '이극로'의 것만 발췌하여 국문으로 번역된 바 있다. 그 뒤 《일석 이회승 전집》 2(2000:420~439)에 전문이 번역되어 있고 《나라사랑》 42(1982)에 번역이 시도된 일이 있으나 잘못 번역된 것도 있고 하여 원문에 충실한 새로운 번역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11) 'Kolu Li'는 '이극로'의 중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적은 것인데 우여곡절 끝에 필자가 두 표기의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밝혀 둔다.

요구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었다. 고루는 당시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 유학하고 있던 황우일, 이의경, 김법린과 허헌(당시 유럽 여행 중이었음)을 이끌고 조선의 독립을 확보하고 총독 정치를 철폐함은 물론, 상해 임시 정부를 승인하라는 3개 조항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반영(反英) 문제만 상정되고 반일(反日) 문제는 채택되지 않았다(고영근 2006/2008:258~259, 이극로 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218~219). 이어 고루는 같은 해 5월에 《조선과 대일본 제국주의 독립 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책자를 간행하였다. 1924년의 책자가 정치적 침략을 다루었다면 1927년의 책자는 경제적·문화적 침략을 고발한 것이다.¹²⁾ 앞의 책자에 대한 보완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¹³⁾ 고루 역시 이운재와 같이 애국 계몽 사상가의 반열에 넣을 수 있다. 각종 수상류의 글을 보면 근검저축, 조혼 폐습, 미신 타파를 비롯하여 공중도덕, 음식 도덕, 양사원의 설립 등이 주장되어 있어 사회 상가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의 우리의 국체를 떠받치고 있던 어문 민족주의와 역사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이운재와 이극로에 의하여 한 차원 높은 ‘문화 민족주의’로 승화하였다. 이에 의하여 ‘한글 운동’으로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권 회복 운동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어학회가 재정비되고 진단학회가 창립된 것이 이를 웅변한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어문 정리 사업과 이로 말미암아 빚어진 조선어학회의 수난의 역사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12) 이 책자에 대한 내용 소개는 고영근(2008:309~311,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2010:309~311)을 보라.

13) 1927년의 책자에 대한 평가는 박용규(2008/2010:373)를 보라.

3.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수난

3.1. 이윤재 · 이극로의 귀국과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조직

환산 이윤재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1924년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이어 일본에 유학하던 최현배와 정렬모가 귀국하였다. 환산은 귀국과 동시에 사상, 어문, 역사, 문학에 관한 글을 많이 썼다. 1928년에는 국학 전문 잡지 《한빛》을 창간하였으며 박승빈(朴勝彬)(1880~1943) 주관의 ‘계명 구락부’의 조선어 사전 편찬에도 관여하였다(고영근 2006/2008:230~231). 고루 이극로는 1927년 베를린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영국, 프랑스, 미국 본토, 하와이, 일본을 거쳐 귀국하였다. 미국에서는 서재필과 이승만을 만났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어가 민족의 생명—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¹⁴⁾ 만나는 사람마다 고루는 국어 운동에 헌신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1929년 1월에 귀국한 고루는 4월에 상경하여 조선어연구회에 입회하고 다시 전국을 주유(周遊)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외국과 비교하여 지상 낙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영근 2006/2008:269).

환산이 귀국하던 1920년대 중반에는 조선어연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글날(첫 이름은 ‘가갸날’)을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안확, 박승빈, 홍기문 등의 반주시경 학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총독부와 대결하면서 민족 어문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협력하였다. 1928년에는 조선어연구회 회원들이 동인지 《한글》을 냈으며 쉰 주시경이 1913년 조선언문회(속칭 ‘한글모’)에서 기약하였던 학회지가 탄생되는 쾌거(快舉)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극로가 귀국하던 1929년은

14) 이 글은 이극로연구소 소장인 박용규 박사가 발견하여 어학 전문 국제 학술지 《형태론》 13-1(2011)에 전재되기도 하였다.

조선 총독부에서 언문 철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론을 수렴 중에 있었다. 실제로 이극로는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도중에 조선일보사의 언문 철자법에 대한 설문에 답하기도 하였다(고영근 2006/2008:373~374).

3.2. 민족어 사전 편찬과 규범 정리

1929년 10월 30일에 서울의 수표동 조선 교육 협회 회관에서 108명의 발기로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가 결성되고 32인의 준비 위원과 집행 위원 5명이 선임되었다. 준비 위원에는 김법린, 박승빈, 방정환, 백낙준, 안재홍, 유억겸, 윤병호, 이광수, 이병기, 이유식, 이운재, 이희승, 장지영, 정렬모, 정인보, 조만식, 주요한, 최두선, 최현배 등이었다. 어문 학자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소설가와 시인, 아동 문학가, 언론인, 법률가, 교육자, 종교인들도 참여하였다. 반주시경 학파인 법률가 박승빈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 범민족 지성계를 망라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집행 위원에는 이극로, 이중건, 최현배, 신명균의 4명이었으며 위원장에는 이극로가 선임되었다. 집행 위원은 모두 주시경 후계 학파였다.¹⁵⁾ 이렇게 대규모의 단체를 조직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한 것을 통해 민족 운동에서 어문 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조선어 사전 편찬이 단순한 사전 편찬이라는 차원을 넘어 민족 운동의 한 고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1930년 1월 6일, 편찬회는 사전 편찬의 일반 업무인 어휘 수집 및 주해와 편집에 관한

15) 한글학회(1971:262~266)와 국립중앙박물관(2008)에서 사전 편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한글학회(1971:262~266)와 한글학회(2009:527~533)는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발기인의 수가 108명인데 후자에는 107명으로 나와 있다. 전자에는 '준비 위원' 33명과 '집행 위원' 5명을 들었는데 후자에는 '발기인' 105명을 추가하고 '편찬회 위원' 21명, 상무 위원 6명을 들었다. 상무 위원에 '정인보'가 추가되었다. 부서의 명칭도 다르고 위원도 차이가 있다. 이곳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취하지마는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일을 맡고 조선어연구회는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인 맞춤법 제정과 표준어 사정 문제를 맡기로 하였다. 두 기구는 1936년에 맞춤법과 표준어 사정이 끝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다. 두 기구의 출범은 ‘민족 어문 운동’이라는 한 목표물을 향하여 달리는 쌍두마차에 비유할 수 있다.

1920년 후반에는 1912년에 공포되고 1921년에 부분적으로 수정한 언문 철자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東光》 편집부는 〈우리글 表記例의 몇몇〉이라는 10개 항의 설문지를 어문 학자들에게 돌려 여론을 조사하였다. 이곳의 통계는 뒤의 총독부 언문 철자법과 한글 맞춤법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¹⁶⁾ 조선 총독부는 당시의 여론을 존중하여 언문 철자법을 형태 음소적(흔히 ‘표의적’) 원리에 가까운 철자법으로 개정하여 1930년 2월에 공포하였다. 개정 언문 철자법은 주시경 후계 학파를 비롯한 민족 어문 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얻은 성과였다. ‘ㅎ’ 받침이 빠진 것만 제외하고는 주시경의 철자법 이론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해 4월부터 각급 학교 교과서에 적용되어 실용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영근 1998:66, 2008:381~389). 일찍이 김두봉은 그의 《조선말본》(1922)에서 ‘날적’[速記法]을 체계화한 일이 있는데 엄정우에 의하여 속기 문자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하였다(고영근 1998:65~66, 2008:328~331). 일찍이 주시경에 의하여 시도되고 김두봉과 최현배에 의하여 깊이를 더한 횡서(가로 풀어쓰기)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였다(고영근 1998:34, 2008:341). 사실 형태 음소적 표기법을 취하면 받침의 수효가 늘어나서 활자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있으므로 풀어서 가로쓰는 문제가 자연히 대두되는 것이다. 국제 공통어인 에스페란토의 보급에 열의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실 1920년대, 특히 후반에는 민족 어문의 중요 문제치고 쟁점화되고 연구의 주제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민족 어문 연구의 황금

16) 고영근(1998:43~48, 2008:352~358)에 당시의 사정이 논의되어 있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두의 ‘ㄹ, ㄴ’ 밝히기는 이때 이미 소수 의견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으로 원동의 고려인 사회에서 그 나름의 철자법이 탄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桂)봉우(桂奉瑀), 오창환(吳昌煥), 강채정(姜采程) 등의 어문학자들은 1929년부터 수차례의 회의 끝에 1930년에 《高麗文典》이라는 이름의 철자법을 제정하여 옛 소련 한인 사회의 언어 문자 생활을 통제하였다. 주로 김두봉의 문법 체계를 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킹 1991).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반도와 연해주의 철자법 제정은 수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쳐 확정되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고려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國字’와 ‘漢字’의 두 갈래를 나누었다. ‘조선 문자’ 내지 ‘諺文’이나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國字’라고 쓴 것은 《高麗文典》의 ‘高麗’와 함께 정신적으로는 국권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교민 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당시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가 독립 운동가들의 망명지였다는 사실과도 무관한 것 같지 않다(고영근 1996/1998:110, 2008:435). 1930년대 후반에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는데 《高麗文典》의 언어 규범이 그대로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어연구회는 1930년 12월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회승 등 12명에게 원안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1931년 1월에는 조선 어문의 연구와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어 표준화를 위한 본격적 기초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32년부터는 기관지 《한글》을 내기 시작하였다. 편집 책임자는 이윤재였다. 그러니까 사전 편찬은 이극로가 맡고 《한글》 편집은 이윤재가 맡은 것이다. 이극로는 사전 편찬의 임무를 맡았으나 맞춤법 제정에 직접 관련되는 기초 연구와 그 원안 작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조선어학회의 새로운 발족은 박승빈 중심의 ‘조선어학연구회’라는

새로운 학술 단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승빈은 이미 1920년대 초부터 계명 구락부를 중심으로 신생활 운동을 전개하면서 주시경 학파와 대립되는 철자법을 만들어 수차례 도전한 일이 있는데(고영근 1998:9~17, 2008:314~323), 1931년 12월에는 동조자를 규합하여 '조선어학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조선어학회는 한편으로는 철자법 완성을 위한 기초 연구¹⁷⁾에 몰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박승빈 학파의 조선어학연구회를 비롯하여 안확, 홍기문, 권영달 등과 논전을 벌였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이론적 우위성을 확보하여 1933년 10월에 총론 3항, 각론 7장, 총 65항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맞춤법 통일안과 총독부의 개정 언문 철자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밝혀 놓을 것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면상으로 보면 개정 언문 철자법과 내용이 비슷하여 통일안이 언문 철자법에서 상당 부분을 옮겨 왔다고 볼 수 있으나,¹⁸⁾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단견(短見)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 언문 철자법이 주시경 학파의 대거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그 결과가 비슷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통일안은 결코 개정 언문 철자법의) 부족한 점을 시정하려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東光》 편집부는 설문지를 통하여 언문 철자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조선어연구회는 개정 언문 철자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29년에 이미 사전 편찬과 함께 철자법, 문법, 가로 풀어쓰기, 한자 제한, 외국어 음 표기의 제정을 계획해 놓았다. 193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 1933년 10월에 드디어 맞춤법을 공포하였다. 총독부의 개정 철자법이 통일안 제정을 가속화시킨 요인은 될 수 있어도 그것만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철자법의 규범을 바르게 세우고 사전 편찬이라는 민족적 대업을

17) 당시 기초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새 받침의 설정 문제를 비롯하여 6개 주체에 걸쳐 있었다. 관련 논의는 고영근(1998:82, 2008:396)을 보라.

18) 이익섭(1992:368)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

성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통일안이 제정·공포되었다는 것을 밝혀 둔다(고영근 1998:97~101, 2008:412~417).

이곳에서 덧붙여 둘 것은 박승빈 학파에 속하였던 양주동(梁柱東)의 공적이다. 양주동은 신라 향가〈원왕생가〉에 대한 일본 학자 오구라[小畠進平]의 해독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당시의 조고계(操觚界)의 화제가 되었다. 양주동은 이것을 발전시켜 향가를 전면적으로 해독한 《古歌研究》(1942)를 상재하고 해방 후에는 《여요전주》(1947)를 간행하여 어문학을 통합 학문으로 정착시켰다(고영근 2003/2010:311~352). 실제로 양주동은 해방 전에 박승빈 주재의 《正音》에 여러 편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유응호(柳應浩)는 해방 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언어학과 주임 교수를 지내기도 하였는데 이미 1930년대 중반에 독일의 언어학자 파울(H. Paul)의 《언어사 원리》를 부분 번역하여 이 땅에 소장문법학파의 이론을 소개하고 독일의 역사 언어학을 소개하기도 하였다(고영근 1989/2001:247~263). 실제로 《正音》지를 자세히 검토하면 《한글》보다 오히려 우수한 기고가 많다. 더욱이 최근 들어 박승빈의 철자법이 주시경 철자법으로 보급하는 현행 맞춤법보다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신창순 1997/2003:393~447), 역사의 되풀이됨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 사이 주시경 학파에 의하여 거의 매장되다시피 한 박승빈에 대한 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말 사정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평가는 사정상 보류하기로 한다. 단, 여기서 특기할 것은 당시의 언론 기관들은 고루를 표준말 사정의 ‘으뜸되는 수훈자(殊勳者)’라고 칭송해 마지않았고 ‘우리 문화를 탁마하는 연구실 내의 명장들’이라는 기사에서 ‘이석신(식품), 함화진(아악), 손진태(민속학), 백남운(사회경제사), 양주동(향가), 정태현(식물학)’의 6명과 함께 조선어학회의 이극로를 첫머리로 들었다(고영근 2006/2008:278~279).

맞춤법의 제정과 표준말의 사정 등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이 끝나자 1936년에는 이원화되어 있었던 두 사업이 일원화되었다. 사실 이윤재는

계명 구락부 사전 편찬에 관여하고 있었던 1927년 상해로 가서 김두봉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원고를 건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 당시 우리말 사전 편찬은 광문회의 사전 편찬을 인수한 계명 구락부와 이상춘 등에 의해서도 편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극로는 여러 기관의 사전 원고를 인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상춘이 제공한 10만 여의 카드를 가지고 편찬에 착수하였다.¹⁹⁾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은 주로 이극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사전 편찬은 1936년에 이우식을 중심으로 하는 비밀 후원회가 조직되어 종로구 화동 129번지 있던 이극로 사저에서 시작되었다.²⁰⁾ 당시의 편찬 환경에 대하여 고루의 종손자인 이종무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회관의 아래층은 고루 박사의 살림집이고 어학회의 사무실은 위층인데 빼뜨덕거리는 나무 계단을 오르면 들머리 작은 방을 지나 큰방이 편찬실이 된다. 창가로 남향하여 왼쪽에서 고루 박사, 이중화, 한징, 정인승, 권덕규, 정태진, 북향하여 권승욱 선생들께서 나무 책상을 놓고 카드 상자에서 연신 어휘 카드를 꺼내어 사전 원고를 정리하기에 바쁘고 …… 청년이시던 이석린 선생이 무슨 출판물을 발송하느니 집무에 열중하시고 …… (이종무 1993:144)

1939년에는 완료된 1/3 가량의 원고를 총독부 도서관에 제출하여 많은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하여 출판 허가를 받아 내었다. 편집 자금에 시달리던 학회는 이우식의 특별 성금으로 드디어 원고가 완성되어 1942년부터 조판이 시작되었다.²¹⁾ 고루가 사전 편찬에 바친 열성은 《朝

19) 김민수(1983/1986:310~355)에 우리나라 사전 편찬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20) 건재 전집(1997:59~61), 이석린(1993)에 저간의 사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

21) 건재 전집(1997:59~61)에 근거하였다. 고루의 사전 편찬에 관한 내용은 고영근(2006/2008:276~282)를 보라.

光》기자의 “熱, 熱 조선의 문화를 끝없이 사랑하는 피 끓는 熱”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고영근 2006/2008:282).

3.3. 조선어학회의 수난의 발단과 개요

일본은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워 만주를 제2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37년에는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조작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확장되는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였다.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동화 정책을 내세운 일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철폐하고 국어(일본어) 사용(1938), 창씨개명(1939)을 강요하였으며 드디어 1941년에는 진주만을 폭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²²⁾ 일제가 날조한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 곧 ‘조선어학회 수난’은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어났다.

수난의 발단은 1942년 여름 일제가 박병엽(朴炳燁)의 질녀 박영옥(朴英玉)의 일기장에서 “國語를 常用하는 자를 處罰하였다”라는 구절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박병엽은 일제에 비협조적인 지식인이었으며 박영옥은 당시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위 구절의 “國語”란 일본어를 뜻하는 것으로서 학교 당국이 처벌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것이 된다.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의 주구 노릇을 하였고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야스다[安田念, 본명 安正默]에게 일기장이 발견되어 이로부터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²³⁾ 9년 동안 영생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정태진(丁泰鎭)은

22) 일석 전집 2, 353쪽에 근거하였다. 일석 이회승은 〈朝鮮語學會事件 回想錄〉을 《思想界》 7-7(1959)부터 9-6(196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이는 일석 전집 2에 전제되어 있다.

23) 일석 전집 2, 475쪽을 보면 박 양의 일기장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든지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을 물리치던 역사 이야기를 자주 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정기를 불려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박영옥의 일기장이 도화선이 되어 정태진은 흥원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정태진은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100여 종의 조목을 열거한 허위 자백서를 썼다. 그 해 10월 1일에 이극로와 정태진을 비롯하여 이중화, 장지영, 최현배, 한징, 이윤재, 이희승, 정인승, 권승욱, 이석린 등 11명의 조선어학회 간부가 모두 검거되었으며 차례로 당시 우리 지성계를 대표하던 이우식, 김법린 등 22명이 검거되었다(일석 전집 2:480~482). 일제는 비행기태우기, 물 먹이기, 난장질하기 등 갖가지 고문을 가하면서 조선어학회 사건을 범법 행위로 조작하였다(일석 전집 2:484). 피의자 가운데서 이윤재, 한징 두 분은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는 불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필자는 조선어학회 수난이 일어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바 있거니와 전세가 불리한 당시의 일제로서는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선일체’의 정책과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인들을 검거하고 최후로 6년에서 2년의 징역을 언도하였다(일석 전집 2:481). 당시의 예심 종결 결정서를 보면 일제는 조선어학회의 어문 운동을 민족 운동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일석 전집 2:418). 사전 편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출판까지 허가를 내 준 조선 총독부가 이와 같이 반국가적인 죄목을 씌운 것은 사전 편찬을 민족 운동의 한 고리로 해석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피의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민족 운동이 아니라고 변명하였지만 주시경의 어문 민족주의와 일제 강점기의 문화 민족주의와 관련시키면 이들의 어문 운동, 곧 한글 운동은 독립운동, 다시 말하면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글의 부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의 한글 운동은 ‘국권 회복 운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의자 중 6년의 연도를 받은 고루 이극로의 한시 〈옥중음(獄中吟)〉과 기소 유예로 석방된 가람 이병기의 시조 〈홍원저조(洪原低調)〉의 한수를 인용함으로써 민족 지사들의 옥중 생활의 일면을 보이고자 한다.

忍苦編辭典 (고생을 참으며 사전을 편찬하여)
 士道盡義務 (선비의 도리로 의무를 다하려 하였다)
 其人犧牲一時事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한 때의 일이고)
 正義眞理永遠生 (진리와 정의는 영원히 살 것이로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537쪽〉

이쭈시개 바늘 삼아 해진 옷을 읽어 매고
 밥풀을 손에 이겨 단추를 만들어 달고
 따뜻한 별을 향하여 이 사냥을 하도다

〈한글학회 편,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 140쪽〉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이윤재와 이극로에 의하여 창도된 문화 민족주의에 힘입어 민족어 규범이 제정되고 민족어 사전이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한글 운동의 최종 성과인 민족어 사전은 출판되지 못하고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발하였다. 편찬원을 비롯하여 당시의 우리의 조고계를 대표하던 지성인들은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고 고문을 이기지 못한 두 어문 학자는 옥중에서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출판이 중단되었던 민족어 사전은 그 원고가 요행히 보존되어 해방 뒤 1947년에 출판이 시작되었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7년에 6권으로 완간되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규범과 사전은 남북이 갈라지고

몇 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이 있었으나 모두 6권의 《우리말 큰사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려 수호하고 발전시킨 덕택으로 해방이 되자 바로 민족어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어 규범과 사전 편찬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더라면 우리 민족의 언어생활이 바른 궤도를 달릴 수 있었겠는가! 이런 선열들의 피어린 민족어 수호 운동과는 아랑곳없이 현재의 우리의 언어생활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느 대권 후보의 주위에서 회자(膾炙)되는 ‘다운 계약서’란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휘인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알기 쉬운 우리말을 개발할 수 있다. 신문, 인터넷, 거리의 광고와 주택 단지의 이름은 모두 영어와 영자(英字)로 도배를 하고 있다. 한자는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것이 국제화로 가는 길인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모토를 잊고 있는가.

고루 이극로는 1948년 김구의 남북 협상 때 민간 대표로 북행하여 그곳에 남아 북한의 어문 정책을 기획하고 특히 ‘문화어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문화어 운동은 이념적인 요소만 제외하고는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말에 뿌리를 둔 어휘를 창조하고 표현을 쉽게 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민족어 발전 철학²⁴⁾을 등에 업고 민족어의 어휘와 표현을 쉽게 다듬어 나가는 방향의 어문 정책을 수립하여 남북 공동의 ‘민족어 발전 운동’을 전개한다면 남북의 언어 통일도 그 만큼 빨라질 것이고 동시에 민족의 화합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문화 민족주의를 등에 업은 조선어학회의 ‘민족어 수호 운동’이 바로 독립을 쟁취하였다는 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수년 전부터 남북 합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은 민족어 발

24) 민족어 발전 철학에 대하여는 고영근(2008:55)을 보라.

전 운동을 다그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2012. 10. 2. 중추절 다음 날, 분당 연락재에서 붓을 놓고 개천절 날에 여러분의 견해를 종합하여 다시 다듬다. 10. 3.).²⁵⁾

25) 편집자 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괄호 사용 방식은 괄호 앞말과 괄호를 띄어 쓰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에 따라 괄호 앞말과 괄호를 띄어 쓰고자 하였으나, 《새국어생활》 편집 지침에 따라 괄호 앞말과 괄호를 붙여 썼음을 밝힙니다.

참고 문헌

- 건재 전집(1987), 《건재 정인승 전집》 6, 박이정.
- 고영근(1992), 《이윤재의 사상 체계》, 周時經學報 12.
- 고영근(1998), 《한국 어문 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고영근(2001), 《한국의 언어 연구》, 역락.
- 고영근(2008),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 고영근(2010), 《민족 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국립중앙박물관 편(2008), 《한글 학자들의 겨레 사랑—조선어학회 사건
그리고 조선말 큰사전》, 국립중앙박물관.
- 김민수(1986), 《周時經 研究(증보판)》, 탑출판사.
- 남풍현(1989), 《高麗時代의 言語 文字觀》, 周時經學報 3.
- 남풍현(2009), 《古代國語의 研究》, 시간의 물레.
- 민두기(1987), 자료 해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논집》 11.
- 박용규(1910), 1920년대의 이극로의 독립운동,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
(1910)에 실림.
- 박종홍(1972), 《韓國思想史연구》, 서문당.
- 신용하(1884가),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 신용하(1984나), 《韓國現代社會思想》, 지식산업사.
- 안병희(2001), 문자사에서 본 薛聰의 位置, 《새국어생활》 11-3, 국립국어
연구원(안병희 2009:13-28에 실림).
- 안병희(2009), 《국어 연구와 국어 정책》, 월인.
- 이극로(1947), 《苦鬪 四十年》, 을유문화사.
-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1910), 《이극로의 우리말글 연구와 민족 운
동》, 선인.
- 이석린(1993), 화동 시절의 이런 일 저런 일, 한글학회 편(1993)에 실림.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종무(1993), 고루 이극로 박사에 대한 회상, 한글학회 편(1993)에 실림.
이희승(1957), 人間 李允宰, 《新太陽》 8(일석 전집 6에 실림).
일석 전집 2(2000), 《一石 李熙昇 全集》 2, 서울대학교 출판부.
일석 전집 6(2000), 《一石 李熙昇 全集》 6,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5(제4판), 지식산업사.
조준희(2010), 유럽에서 이극로의 조선어 강좌와 민족운동,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편(1910)에 실림.
킹(R. King)(1991), A Soviet Korean Grammar from 1930, 《한국말교
육》 3.
한글학회(1971),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편(1993), 《얼음장 밑에도 물은 흘러》.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